News p/2



요우커 특수 끊기나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4일 목요일 제3229호 www.metroseoul.co.kr

News p/3



메르스 병원공개 요구 빗발

"한국이 무서워요"



3일 경복궁에서 한 중국 관광객이 마스크를 쓴채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메르스 여파 한-중관계에 불똥
요우커, 한국 외면 엔저 일본으로
반한감정 격화… 특단 대책 시급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심화되는 동안 홍콩의 봉화망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79.11%가 "(한국인의 메르스 전파와 격리 거부로)한국 국민의 전체적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지난 2일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한국 의료계와의 일시적인 교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홍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토의 눈치를 보지 않는 홍콩 당국은 본심을 드러냈지만 그나마 중국 당국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위험신호다.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중국의 광둥성이나 홍콩에서 확진환자가 나올 경우 사태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이미 한국은 중국에게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꼬투리가 잡힌 상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축소 위협이다. 2010년 일본 정부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중국 어선의 선원을 구속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일본을 굴복시킨 바 있다.

2014년 한중 교역액은 2354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대미, 대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동안 대중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대로 중국발 충격 우려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중국의 반한 감정은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중국 지도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든다. 심지어 중국 지도부의 결단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한국을 앞세워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공략하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과 접촉해 실속을 챙기고 있다. 지난 4월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환담을 나눴다. 최근 중국을 찾은 자민당 인사를 통해 다시 아베 총리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을 대체할 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잠재적인 교역 감소 위협이 아니라도 당장 소비시장의 고객인 중국 관광객(요우커)이 빠져나가고 있다. 세월호발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나기 시작한 국내 소비시장이 다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요우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월 요우커는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에 결정타를 먹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눈은 여전히 근시안적이다. 시선을 돌려 중국을 살피는 기미조차 안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홍보나 하겠다고 한다. 국내의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에 보건복지부나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그 많은 대외업무 인력은 어디로 갔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메르스 공포, 요우커 특수 끊기나

2500여명 관광 취소… 예약률도 크게 떨어져
호텔도 개별여행객 취소… 화장품숍 위생 강화



관광객들도 모두 마스크 쓰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대상자가 1364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우려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3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늘면서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국 여행을 예약한 관광객들의 취소가 잇따르며 요우커 특수를 누리던 관광·화장품·면세점 등 업계는 메르스 확산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초긴장에 들어갔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인 씨트립은 메인페이지에서 한국여행상품 노출을 중단했다. 메르스 사망자가 이날까지 2명에 이르자 한국여행상품 노출을 중단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요우커의 한국 여행 취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한국관광 예약상품을 취소한 요우커는 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대만 관광객 500여명도 한국여행을 포기하면서 중국계 외국인 총 2500여명이 한국 관광 예약을 취소했다.

여행사별로는 4일부터 11일까지 하나투어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출발,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300여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상하이가 200명, 베이징이 100명이다. 모두투어에서도 이달 한국여행상품의 요우커 예약 취소율이 9%에 이른다.

여행업계는 대규모의 요우커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진 않고 있지만, 이번주가 고비로 보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단체 여행은 몇 개월씩 준비하는 특성상 취소가 쉽지 않지만 취소율이 5~10% 가량 늘었다"며 "문제는 예약률이 크게 떨어졌다. 메르스 확산이 줄지 않으면 여파가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때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요우커 덕에 호황을 누렸던 화장품·면세점·호텔 등은 당장의 매출 하락은 없지만, 메르스 확산 속도에 예의주시하며 위생 관리에 신경을 쏟고 있다.

에뛰드하우스·이니스프리·아리따움·마몽드 등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메르스 대책 마련 회의를 열고, 전체 브랜드 매장에 대한 위생 강화 지침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나 메르스 확산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부나 보건당국에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더스코스메틱은 이날 본사 직원들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매장을 찾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매장에 손 세정제를 비치했다. 네이처리퍼블릭도 전 매장에 공지를 통해 매장 청결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도 매장 내 소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가 아직까지는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지만 여행객 감소는 면세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즈니스 방문자 위주인 특급 호텔은 별다른 예약 취소가 없지만 비즈니스호텔의 경우 개별 여행객 예약 취소가 접수되고 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객실 예약을 취소하는 외국인 고객은 없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해외출장 자제령이 내려질 정도로 단체 활동에 제한이 생긴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위생 강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김수정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군대 빨리 가는 3가지 방법

재학생 입영원출원제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육·해·공군 모집병 제도

메트로신문이 입영장수생 문제를 제기하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3일 보도자료를 냈다. 군대 빨리 가는 법을 친절하게 안내한 자료다.

이날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3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재학생 입영원출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입영계획을 1년 전에 미리 세워 다음연도의 입영 희망월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선착순이고 특정 시기에 신청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빨리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은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다. 입영일자는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병무청 누리집으로 신청을 받아 전산 추첨을 통해 입영일자를 결정한다. 대학생은 물론 모든 입영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산추첨에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공석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육·해·공군 모집병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육군 모집분야는 총 5가지로 △차량운전병 등 136개 특기를 선발하는 기술행정병 △특별한 자격·전공이 필요한 전문특기병 △친구 등과 함께 입영하는 동반입대병 △가족이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직계가족부대병 △최전방 GOP에서 복무하는 분소대전투병 등이다. 처음 두 가지는 해당특기와 관련된 자격 면허가 있거나 전공자로 지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전산추첨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해·공군은 일반병과 기술병이 있다. 일반병은 자격, 면허,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다. 기술병은 본인이 지원하는 계열과 관련된 자격·면허 소유자나 전공자만이 지원가능하다.

병무청은 모집병은 매월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의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아기자

사거리 500km 미사일 개발… 북 전역 타격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우리 군이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한 사거리 500㎞ 이상의 현무-2B 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모습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흥서 시험발사 성공
올 말부터 기지에 배치

우리 군이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이후 2년8개월여 만의 성과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정부소식통이 밝혔다. 이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거리는 800㎞ 이하로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오늘 처음 발사했다"고 말했다.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육군미사일사령부 예하 기지에 배치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격파하는 '킬 체인'의 핵심전력이다.

정확도가 우수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t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800㎞의 탄도미사일은 개발이 상당 수준 진척됐으며 최근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자세와 제어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800㎞를 개발 중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1t 미만) 기술을 상당수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사거리 300~550㎞의 스커드 미사일, 1000~1300㎞의 노동미사일, 3000㎞의 무수단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거리 1만3000㎞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비밀 아닌 비밀 '메르스 병원' 공개 요구 빗발

여야 "국민 불안·불신 해소 위해 정보 공개해야"
당국 "병원 리스트·대처법 유언비어… 엄정대응"



3일 오전 경기도 한 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대로를 지나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지역과 병원을 공개하지 않은 탓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마스크 인파가 넘쳐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로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넘쳐난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른바 '메르스 병원 리스트'가 돌고 있다. 정부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리스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SNS상 병원 리스트나 메르스 대처법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다.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기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병원, 감염경로, 치료 방법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SNS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의 성명을 통해 병원 공개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가 직접 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발생 지역 및 의료기관 등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SNS에 온갖 괴담이 퍼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말도 있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무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추천한 당 내 대표적인 보건전문가는 서울대 의대교수 출신의 김용익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우선 (발병)지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지역공개를 해야 주민들이 조심할 것이고 괴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지역의 의료인들도 주의깊게 그런 환자가 있는 지 진단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총체적으로 메르스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를 해야 그 병원에 대한 지원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공개 거부로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비공식적 논의들이 SNS를 통해 오고 가는 중이다. 의료진들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을 미리 피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비공개 논의의 특성상 일부 국민들만 이를 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불균형 문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뚫리면 답 없다… 軍도 초비상

메르스 사태로 군이 초비상 상태다. 일단 뚫리면 답이 없기 때문이다.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학교보다 메르스 확산 위험이 더욱 크다. 휴전선을 비워두고 학교처럼 잠시 문을 닫을 수도 없다. 3일 국방부가 각종 비상대책을 쏟아 낸 배경이다.



3일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가운데 방독면을 쓰고 하는 화생방 훈련이 메르스를 쉽게 퍼뜨릴 수 있다고 보고 다른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화생방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이 방독면을 돌려쓰다가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환자 응급처치 훈련(인공호흡)도 임시로 중단하고 다른 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응급처치 훈련 중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메르스가 퍼질 수 있음을 우려한 대책이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감염 의심 군입대자는 즉시 격리해 귀가시키고 감염 의심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비상대책에 따르면 최근 중동지역 여행자,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자, 메르스 치료 병원을 출입한 자 등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스스로 판단하기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예비군 부대나 병무청에 통보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입소 과정에서도 간이 신체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귀가 조치하기로 했으며 예비군들이 훈련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부대에도 메르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와 각 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자 중 감염 의심자는 즉시 격리하고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기침이나 발열, 가슴 답답함 등의 몇 가지 증상 있으면 귀가 조치 대상이다.

현역병 등의 입영 날짜도 연기할 수 있다.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격리되거나 감염자로 의심, 확진된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 또는 감염비대상자로 확진된 후 30일까지다.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 팩스밀리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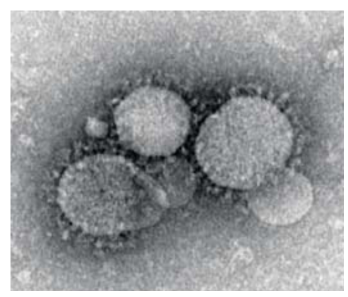
국방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으로 휴가를 가는 장병에 대해서는 휴가를 자제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장병에 대해서는 발열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또 전역 직전에 장기간 휴가를 다녀온 장병의 경우 보충대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전역하도록 해 소속 부대 장병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육·해·공군 본부와 의무사령부에 있는 예방의학장교들로 4개 팀으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편성해 메르스 방역활동을 총괄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메르스 진료 병원 간호사인 어머니와 접촉해 감염 의심을 받았던 A 일병은 메르스 검사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윤아기자 yoona1@

靑, 메르스 종합대응 TF 구성

격리자 하루새 573명 늘어
범정부 차원 체계적 지원



메르스 바이러스.

3일 격리자가 하루밤새 573명이 늘자 정부는 이날 오후 메르스 감염 확산사태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응을 위해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서울대 오명돈 교수, 한양대 최보율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또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 복지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히 청와대에서 정부, 전문가 참여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이유는 평택과 수원 등 수도권에 이어 원주와 부산, 경남 사천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대전·천안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계속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진이 쓰러지면 메르스를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범정부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즉 장비와 시설 등에 대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1364명(자가 1261명·시설 103명)으로 교사·학생 약 300명과 119구급대원 11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지난 밤사이 5명이나 추가돼 사망자 포함 총 30명으로 늘어났다.

생존 확진자 중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3명으로 밝혀졌다. 의심 환자로 병원에서 검사 중인 인원도 100명에 육박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

다시 떠오른 '삼성X파일' 황교안 발목 잡나

재벌-권력 유착의 '끝판왕' 몸통은 무혐의 곁가지만 처벌

8일~10일 열린 황교안(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증인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오르면서 '삼성X파일' 사건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황 후보자는 승승장구한 반면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실명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당시 사건이 뒤늦게 황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등에 합의하면서 황 후보자도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5명과 참고인 17명 등 총 22명이 포함됐다. 주목할 증인은 노 전 의원이다. 그는 삼성그룹으로부터 1997년 추석 때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증인으로 나서는 노 전 의원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X파일 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를 통해 삼성의 초고위층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이 폭로된 사건이다.

녹음 파일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진영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하고 고위급 전·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한다는 등의 사실이 담겨있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정·경·언·검 유착이 도마에 올랐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 후보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삼성이 돈을 뿌린 것은 맞지만 회사 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은 성립하지 않고,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는 논리였다.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이건희 회장이 제출한 서면조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이 질문한 85개 항목에 대해 답변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요지는 '그 돈은 내 개인 돈이고, 사용처는 사후 보고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당시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한창 전개되던 시점이었고,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황교안 수사팀의 이런 결론은 국민 정서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이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위한 계좌추적 등 노력의 흔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금품 지원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수사팀이 스스로 법적용에 한계를 설정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검찰의 칼끝은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삼성과 권력층 대신 도청을 한 안기부 직원과 녹음 테이프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인, 여기에 등장한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등에게 집중됐고 결국 이들은 모두사법처리됐다.

'삼성X파일' 사건은 삼성이 정치권과 사법기관 등을 다루는 방법과 그에 대한 화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황교안 검사는 이 사건이후 승승장구 해 고검장까지 오른 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했고 마침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후보에까지 올랐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다음·카카오 합병 정보로 부당이익 챙긴 직원 벌금형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다음 전 계열사 김모(41) 전 온네트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올랐다. 김씨는 이를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의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홍원기자



'창장 참사' 456명 중 단 14명 구조 지난 1일밤 창장(양쯔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구조작업이 3일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희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단 14명만이 구조됐을 뿐이다. 총 탑승인원은 당초 458명에서 456명으로 수정됐다. 선체 개조 및 무리한 운항 의혹 등 점점 세월호 판박이가 돼 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회사 승인 받아 비자금조성"

전 포스코건설 상무 공판기일서 진술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1시 20분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상무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며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등 다른 명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박 전 상무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상무 측 발언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홍원기자

불법콜센터에 돈주고 사건 수임한 변호사에 "집유"

불법 콜센터업자의 알선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2013년 10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한 사건당 6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콜센터업자들로부터 300여명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한 뒤 대가로 2억32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씨의 범행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 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이씨의 적극적 의지라기 보다는 모집책들의 제의에 따라 시작됐고, 구체적 업무는 사무장이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이씨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메르스 지역감염 없다고?… 믿어도 되나

바이러스 분당·평택·오산 이어 아산·부산까지 남하 중

메르스 3차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절대 지역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바쁜 모습이다. 3일 전화인터뷰에 응한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역감염에 대해 "아직 격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지역확산 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전국에 10만명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보다는 격리실과 치료할 장비 그리고 자가격리를 체크하고 관리할 인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메르스가 이렇게 빨리 확산되기까지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준비와 개념이 부족했다"면서 "2년 전 2013년에 이미 메르스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보건보다 복지 쪽에 치중하다 보니 전문인력이나 장비시설 등에 소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지금 이 상태로 3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의협은 정부와 호흡을 맞춰 팀을 구성할 것이고 협회 차원에서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위해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격리 대상자가 마침내 1000명을 넘어 1400명 가까이 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대상자 전날보다 573명 늘어난 1364명이라고 발표했다. 자택 격리자가 1261명, 기관 격리자가 103명이다. 격리대상이었다가 격리해제된 52명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날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명, 확진 환자는 30명(사망 2명 포함)이다. 확진 환자 28명은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자 398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 중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연일 메르스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3차 감염은 병원내 감염일뿐이다며 지역감염은 절대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의 보호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감염자 발생에 대한 중계만 하고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3차감염자가 확산될 경우 지역감염도 순식간에 되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 보름만에 30명에 이르자 정부에서도 경기도내 '메르스 전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한미정 사무처장은 "지금 이 속도로 3차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사무처장은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앞서가기는 커녕 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환자를 발표하기에 급급했고 대처능력을 완정히 상실했다"면서 "3차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면 정부의 능력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사무처장은 "지금의 수용시설은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하루속히 주의를 경계로 격상시키고 메르스 감염방역대책반을 복지부에서 청와대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 사무처장은 또 "메르스 감염환자가 서울, 분당, 평택, 오산, 충청권(아산)까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더 이상 복지부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올게 뻔하다'며 "접촉병원 역시 국민들 80%이상이 공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환자가 급증하는 비상시에 오로지 메르스 환자만 보는 병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공립 기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메르스 차단' 인천공항 방역작업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대상자가 1364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우려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3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사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를 묵인한 방위사업청 중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에서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WTS에 적용할 일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신 중령을 상대로 일광공영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군인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전교조, 다시 법외 노조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재심리하라고 대법원이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당장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원심의 효력은 없어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에도 1심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후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원천징수 중단 등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 왔다.

다만 해직교원 9명 때문에 약 6만명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홍원기자 hong@

장세주 공동피고인 김모 소장 '혐의 인정'

<동국제강 회장>

회삿돈을 횡령하고 상습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재판에서 동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소장의 추가 진술 여부에 따라 장 회장과 관련된 일부 횡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장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20분 열린 장 회장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소장 측 변호인은 "(김 소장이) 인정하는 혐의는 다른 피고인들과 법리적 다툼이 크게 없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8일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은 장 회장에 관한 혐의 증거 기록이 방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못한 채 끝이 났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거래업체인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K사 대표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홍원기자

메르스 돌출악재 한국경제 '비상등'

엔저·내수부진에 '엎친데 덮친격' 추경·금리인하 등 응급처방 불가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1000여명을 넘어서며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커진 데다 엔저 우려와 수출 부진까지 잇단 악재로 경제 전망위적인 부문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시장이 예상치 못한 복병에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달 하순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메르스' 복병 만난 한국 경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산업생산은 2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3%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0.5% 감소한 이후 2달 연속 감소세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물량까지 줄어들고 있다.

설비투자와 광공업 생산, 건설투자 등 세부 주요 지표도 하락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감소했다. 자동차와 통신·방송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6%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탓이다.

결국 소비만 부동산, 비내구재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부진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까지 위축될 공산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올 7~8월 방한을 취소한 외국 관광객은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아직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국내외 소비자들이 공공장소를 꺼리면서 관광과 오락·문화, 음식·숙박업 등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610만명이 방한하며 내수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계획이 잇따라 취소됨에 따라 유통업종도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JP모간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경기 순환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에 메르스가 발생했다"며 "메르스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내 메르스 확산 상황과 정부의 대처 능력에 따라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경제 부처들은 현재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추경 편성·금리인하 카드 나오나?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점검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예정됐던 서민금융지원 대책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메르스 해결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두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메르스가 확산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정부 역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경제연구소등에 따르면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생겼을 당시 관련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한 바 있다.

사스 발병지였던 홍콩의 성장률은 2003년 1분기에 4.1%였지만 2분기에 -0.9% 내려갔다. 같은 기간 중국은 10.8%에서 7.9%로 성장률이 급락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인 2009년 3분기 한국의 여행업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24.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여행·관광, 유통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과 경기부양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추경에 대한 편성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오는 11일 금통위에서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꼽히는 것이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은 "4월 산업생산과 5월 수출 부진, 소비자물가 저공비행 등으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메르스와 엔저에 직면했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전망했다.

류 팀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함께 정부가 이달 말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예고한 점이 증시 변동성을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가 심화될 경우 코스피지수가 6%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3차 감염이 확대될 경우 코스피는 지난 2003년 홍콩과 중국증시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충격 당시처럼 6%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실물 경기 측면에서 사스와 신종플루에 따른 충격은 미미했지만 심리적인 공포가 커 소비심리지수는 일시적으로 악화됐다"며 "중국 관광객과 관련된 화장품과 면세점, 항공운송, 호텔과 카지노·레저 등의 업종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꼽았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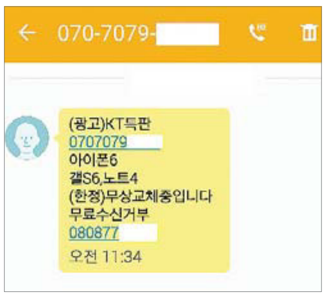
KT대리점 은밀한 불법보조금 살포… 단속 안하나 못하나

단통법을 비웃는 듯 KT대리점 등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적 보조금은 정해져 있지만 대리점들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조사는 대리점 탓으로 돌리지만 대리점들은 제조사들이 과도하게 뿌리는 각종 판매장려금 등을 이용해 소위 공짜폰을 만드는 구조라고 공공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3일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 A씨는 스마트폰 판매관행에 대해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의 기형적 구조에서 불법리베이트가 기인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사들의 '장난질'로 단말기 공짜대란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사의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뤄져있는데 자체 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오프라인은 물론 문자나 온라인상에서 반짝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보조금을 살포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리점에서 판매점을 꾸릴 수 있는 구조이고 판매자가 되는 진입장벽이 낮아 이동사가 판매자 집계가 어렵고 복잡한 구조로 정착돼있다.



이런 유통 구조상의 문제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공시지원금을 공개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해 공짜폰 대란은 뽐뿌 등의 스마트폰 커뮤니티 등 관련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홈페이지상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짝이벤트' 등으로 게릴라성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리베이트가 있다는 첩보는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간헐적인 점조직 형태라서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뒷 배경에는 제조사의 리베이트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제조사들이 단말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쟁사의 신제품이 나올 때 단말기 리베이트를 한시적으로 높여 경쟁사 제품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거나 신제품이나 오기 앞서 이전 시리즈 제품의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해 줘 경쟁사 제품의 판매율을 끌어 내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컨대 LG전자의 G4가 출시되면 삼성은 기존의 갤럭시S5 등 시리즈를 통신사에게 물량을 제공할테니 통신사도 지원금을 높여 판매를 유도하자고 제안한다"며 "대리점에게 경쟁사보다 리베이트를 두 배 올려줄테니 주력해서 판매해달라는 암거래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정문경기자 hm0108@



전설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고수들의 손맛전쟁
한食대첩3
오늘밤 9시 40분
O'live
한食대첩
제작지원
하동녹차
왕의녹차
올'리브 채널 번호: 케이블TV 지역 방송국에 문의 IPTV_올레TV 76번, U+TV 78번, BTV 206번 스카이라이프 271번 (HD 104번)

정태영, '모바일카드' 거부한 까닭은

"핀테크로 가능한 기능… 전용카드 따로 필요 없어"



현대카드가 모바일 전용카드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수요보다 시류에 치우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바일 전용 카드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2월경에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아이디어가 나왔고 타사들도 비슷한 생각이 있음을 알았지만 우리는 (모바일 카드 출시를) 보류키로 결정했다"며 "일부 특화된 혜택은 있지만 용도폭이 너무 작고 모호한데다 시류에 치우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하나카드와 신한, BC카드 등이 플라스틱 실물없이 사용 가능한 모바일 단독카드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여기에는 당장 이용 가능한 가맹점과 스마트폰 방식에 따른 제약이 있는 상태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무조건 대세를 따르기보다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핀테크(Fin-Tech)로 가능한 기능을 굳이 전용카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카드가 여타 카드사와 다른 독자 노선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 부회장은 "혼자서 남들의 반대로 갈 때는 항상 불안감과 스릴이 공존한다"고 평할 만큼 '마이웨이(My way)'를 걸어왔다. 실제 지난해에는 카드사 유일하게 스키장 제휴 할인을 실시하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카드 플레이트에 디자인을 입히는 것부터 봉평장을 꾸미고 와인을 주제로 한 상품을 선보이는 등 혁신을 거듭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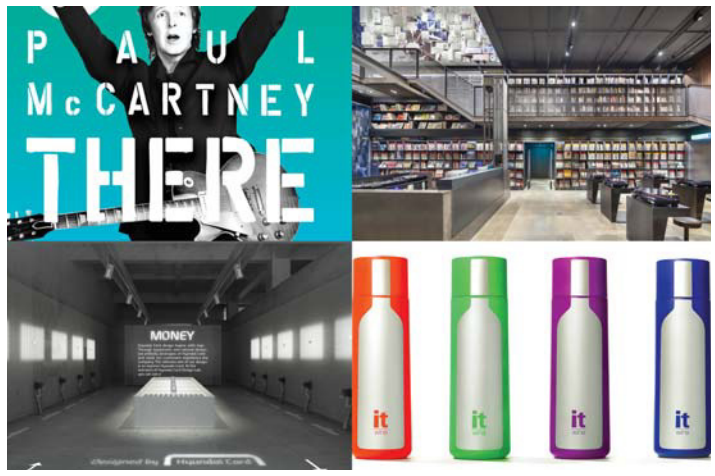
슈퍼콘서트 같은 굵직한 문화 마케팅도 주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이태원 한가운데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인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언더스테이지'도 오픈했다.

뮤직라이브러리는 디자인과 여행 도서관에 이은 3번째 도서관이다. 이곳에는 희귀 음반과 1950년대 이후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1만여 장의 아날로그 음반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현대카드의 활동 무대를 보다 다양한 문화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심도 깊은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현대카드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권에서는 이례적으로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한편 퇴직직원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CEO 플랜'도 진행 중이다.



현대카드는 슈퍼콘서트, 와인, 도서관 등을 소재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현대카드 제공

현대카드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강한 오너 리더십'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경우 여타 카드사 대표와 달리 현대가(家)의 사위라는 특이점이 있다"며 "개인적인 성향을 놓고 봤을 때도 실험과 문화를 즐기지만 (이같은 특이점이)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부회장은 지난 11년간 현대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역임하며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면서 "이 실험들이 고객에게 '색다름'으로 비춰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국내은행, 5월 주택대출 6조3000억

"안심대출 유동화 여파"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국내 7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두달째 6조원대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기업 등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330조9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말 330조9773억원에서 한달 새 409억원 감소한 수치다.

단 안심전환대출 유동화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주택담보 대출액은 5월 한 달 동안 6조원 이상 늘어났다.

앞서 이들 7개 은행은 지난달 안심전환대출분 6조4120억원 규모를 주택금융공사로 양도했다.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 시행 후 처음으로 유동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 결과 유동화 금액을 제외한 주택담보 대출 증가액은 6조3711억원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지난 4월 6조8395억원을 기록하는 등 두달 연속 6조원을 돌파했다.

전통적인 비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6조원에 달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7719억원으로 나왔으며 2013년(1조9534억원), 2012년(1조8265억원), 2011년(1조538억원), 2010년(7975억원) 등이다.

/백아란기자



영업점·중소기업 방문해 현장경영 실시 조용병 신한 은행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호남지역 우수고객 초청 오찬세미나를 마치고 참석한 고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KB손보, 초대 대표에 김병헌 LIG손보 대표 내정



KB손해보험의 초대 사장에 김병헌(사진) 현 LIG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KB금융은 최근 지배구조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된 KB손보 신임 대표 후보로 김병헌 현 LIG손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는 24일 예정된 LIG손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김 후보는 LIG손보 대표이사와 영업총괄 사장, 법인영업 총괄 부사장, 경영 지원 총괄 부사장, 경영기획담당 전무를 거쳤다.

KB금융은 "손해보험업계의 정체된 시장 상황과 매각발표 이후 인수·합병(M&A) 지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을 견실하게 이끌어온 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김병헌 현 LIG손해보험 대표이사를 KB손해보험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하나·외환銀 "핀테크 기업 육성·협업 강화"

'핀테크 1Q Lab' 개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 2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핀테크 1Q Lab(원큐 랩)'을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핀테크 원큐 랩'은 핀테크 업체가 은행이 제공한 사무공간에 입주해 협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형태로 핀테크 스타트업(start-up) 육성과 긴밀한 협업 체계 마련을 위해 나왔다.

첫 대상 기업체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와 얼굴인식 보안 솔루션 업체인 '㈜파이브지티'가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법률 상담 관련 1:1 멘토링 ▲하나금융그룹내 관계사와 업무 연계 ▲기술금융 및 IT 관련 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핀테크 원큐 랩'과 같은 금융과 IT간 협업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 발전적 동행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 감독당국은 은행 혁신성 평가항목에 핀테크 활성화 지원 부문의 배정을 검토하는 등 은행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업계와 금융회사 그리고 감독당국간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기존 스마트폰뱅킹 중심의 스마트금융 패러다임을 넘어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핀테크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내 금융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외환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정부의 정책 및 핀테크 금융 확산에 발맞춰나가겠다"면서 "핀테크 금융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하루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아란기자

'호실적' 현산·대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은 '희비'

현대산업개발

국내주택사업 호조로 약정 1년만에 조기 종료

대우건설

해외사업 225억 적자로 부채비율 감소 미흡

지난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동시에 호실적을 기록하고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현산의 경우 국내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조기종료가 결정된 반면 대우건설은 해외사업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은 결과 수익성·채무상환능력·재무안정성·현금흐름·유동성비율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약정 조기종료를 통지받았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이란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군(주채무계열)에 대해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행하기 위한 협정을 뜻한다.

앞서 현산은 지난 2013년 147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5월 30일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다. 미착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으로 인한 손실이 주원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시장 회복으로 1년 만에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산의 영업이익은 2253억원, 영업이익률은 5.0%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과 유동성비율은 각각 2.5배와 9.6%를 나타냈다. 연결 부채비율은 161.2%로 1년 만에 30.4% 포인트가 줄었다. 총 차입금 규모도 4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비슷한 시기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돌입한 대우건설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9조853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도 17.1%(1조 436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매출은 6조6998억원으로 전년(5조5049억원)보다 21.7%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기조 속에서 성공적인 분양성적을 거둔 주택과 건축 부문이 33% 늘어난 5조1848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2531억원 적자에서 41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문제는 해외사업이다.

대우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원가를 제외한 차익)은 7439억원으로 전년 4083억원보다 80% 이상 증가했다. 국내 매출총이익은 전년 4083억원에서 7439억원으로 82.2% 증가했지만 해외사업의 매출총이익은 225억원 적자다.

이때문에 대우건설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76.4%로 5.1%포인트 하락했다.

올 1분기에도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은 279%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사 '빅5'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건설처럼 부채비율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 재무구조 평가 점수는 50점을 넘어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졸업할 수 있다"며 "국내사업에 치중한 현산은 국내 주택경기 호조로 약정을 졸업할 수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계약 지연으로 약정 조기 졸업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거래·공급·가격)

"하반기 주택시장 트리플 상승"

하반기 주택시장도 상반기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거래·공급·가격 트리플 상승세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일 '201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하반기 전국적으로 매매가는 1.1%, 전세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은 하반기에도 1.3%의 상승이 기대되면서 올 한해 3%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였던 2%보다 상향조정된 수치다.

전세가격은 저금리, 민간아파트 준공물량 부족, 서울 재건축 이주수요 여파로 상승압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다만 상반기보다 오름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최근 매매전환이 활발해지면서 전세수요가 분산되고 있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금 상승에 한계가 있어 전세가격 상승률은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주택거래전망 BSI는 수도권 157.4, 지방 102.7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방은 상반기 수준의 주택거래가 유지되고, 수도권은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안정적 회복세로 진입하고 거시경제를 견인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이 안정적 회복기에 진입해야 하는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차원의 재정·통화정책과 주택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옥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수요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선택 폭 넓어진 민간임대 아파트 어떻게 고를까

종류따라 청약자격·임대기간도 달라

민간임대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데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등장으로 선택의 폭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아파트 종류마다 청약자격, 임대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임대 아파트의 종류는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순수 민간임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뉴스테이 등 3개로 구분된다.

수요자들은 이들 주택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임대로 거주하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분양을 받거나 집을 비우면 된다.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월세 방식이 대부분이며 적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분양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5년 또는 10년 뒤 공급가를 미리 확정하는 곳들도 있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확정 분양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같은 민간임대 아파트라도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은 다르다. 먼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순수 민간임대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청약자격에 큰 제한이 없다. 주택소유, 청약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롯데건설이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1236가구 중 179가구를 민간임대로 내놓게 됐다.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돼 가격은 저렴한 반면, 청약자격은 까다로운 편이다.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조건은 분양전환을 받기 전 입주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전매·전대는 불가능하다.

이달 진아건설이 전남 순천 오천지구에서,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뉴스테이는 국민주택기금 일부를 지원 받는다. 이에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사업자가 8년 임대 후 입주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고 재임대할 수도 있다. 청약자격은 따로 정해진 게 없어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현재 인천 도화동, 서울 신당동, 서울 대림동, 수원 권선동이 확정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도심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자라면 순수 민간임대나 뉴스테이를 생각해볼 만하다"며 "자격을 갖췄다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롯데건설 '롯데캐슬 블루오션' 381가구 분양

롯데건설이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롯데캐슬 블루오션' 아파트 381가구를 이달 분양한다.

영도구에 10여년 만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 2층, 지상 25층, 5개동, 전용면적은 다양하다. 이 중 82T㎡ 4가구와 112PH㎡ 4가구는는 복층 테라스하우스로, 103PH㎡ 1가구와 122PH㎡ 2가구는 펜트하우스로 꾸며진다.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통해 남포동, 부산역, 서면 등 부산 도심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부산항대교 개통으로 센텀시티와 해운대까지 빠르게 진입 가능하다.



영도 롯데캐슬 블루오션 조감도.

롯데캐슬 분양관계자는 "부산의 뜨거운 청약열기와 영도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어우러져 벌써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힘 잃은 삼성전자-현대차, 증시 영향력 '뚝'

| 마켓인사이트 |

실적 감소·대외여건 악화 삼성·현대 시총 비중 8% ↓

국내 증시 견인차 역할 옛말 이익 증감률 '발목' 위상 추락



삼성전자 주가추이.



현대차 주가추이. /키움증권

국내 대표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덩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22%가 채 안 된다. 삼성과 현대차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끈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된 모양새다.

◆ 삼성전자-현대차 동반 하향곡선

3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30%(3만원) 내려 127만3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일 종가기준 129만1000원까지 떨어진 주가는 이튿날 130만원 선을 회복했다가 곧바로 130만원 선을 반납하는 등 밀고 당기기를 반복 중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4월 29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이후 현재까지 8.08%, 갤럭시S6 출시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는 14.56% 역주행 했다. 시가총액도 186조7755억원으로 한 달 만에 20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사도 불황이다.

현대차 주가는 전날 종가기준 10.36% 하락한데 이어 오는 3일에도 2.17%(3000원) 떨어져 13만55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13만2000원까지 내려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기아차는 전일 4.12% 하락에 이어 0.88%(400원) 내린 4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모비스 홀로 2.25%(4500원) 오른 20만4500원을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현대모비스는 전날 종가기준 8.47%(1만8500원) 줄어 20만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19만7500원까지 떨어져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현재 현대차 시총은 29조8474억원으로 하루 사이 1조여원이 증발했다. 지난달 27일 7000억여원 차이로 시총 2위 자리를 내준 SK하이닉스와의 격차는 7조여원으로 크게 벌어진 상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가 주식시장에서 이토록 부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실적 악화' 때문이다.

우선 삼성전자가 사활을 건 갤럭시S6 시리즈는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홍콩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S6 시리즈의 4월 합계 판매량은 약 600만대다. 세계 시장의 판매량 순위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각각 3, 4위로 아이폰6(1위)와 아이폰6플러스(2위)에 뒤져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 기간 갤럭시S6 판매 실적은 전작보다 양호했지만 아이폰이 출시 첫 주말 1000만대가 판매된 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라고 평했다.

현대차도 실적 악화 여파에 시달리는 중이다. 현대차가 지난 1일 공개한 판매실적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달 판매대수는 38만9299대로 전년동월 대비 6.4% 줄었다. 기아차도 4.5% 하락한 24만205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현대차의 내수시장에서의 판매대수는 8.2% 역행했고, 해외 판매도 6.2% 감소했다.

◆ 시총·영업이익 비중 역대 '최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의 국내 증시 비중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이 본격화된 지난 2009년 8월 현대차 3사 시총 합이 포스코를 넘어 2위로 올라섰고 당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가 코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2~2013년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의 시총 합은 30%에 달하기도 했다"며 "이는 이익 호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증시 전체가 이익부진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이익비중은 2012~2013년 40%를 웃돌았고 2012년 4분기와 2013년 4분기에는 50%를 넘기도 했다"며 "이때만 해도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빼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을 고점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시총 비중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 삼성전자의 어닝쇼크가 겹치며 양사의 시총 비중은 25%대로 하락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의 시총 비중은 21.41%로 지난 2011년 8월 이후 최소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불황은 국내 증시의 이익 증감률까지 끌어내리며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는 국내 증시 전체 영업이익 증감률이 -21.2%로 크게 부진했다"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0% 감소했고 현대차 3사도 13.4%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영업이익 증감률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의 이익비중은 27.2%에 불과해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를 제외한다면 증감률은 30%를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삼성전자 주가 하락세… 액면분할 안하나

아모레퍼시픽 성공 사례 KTOP30지수 편입 조건 액면분할 목소리 솔솔

삼성전자 주가가 130만원 밑으로 떨어지며 하락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3만원 하락한 127만3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올해 들어 최저가인 12만5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1일 기준 7조4695억 원으로 한 달 전 7조5610억 원에 비해 1.21% 하향 조정됐다.

스마트폰 2분기 예상 판매량도 발목을 잡고 있다.

메흐디 호세이니 수스퀘하나 파이낸셜그룹 애널리스트는 이날 삼성전자의 올해 2·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각각 7500만대 수준으로 기존 전망치였던 7900만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도 178만5000원에서 170만원으로 낮췄다.

이러한 하락세에서 주가 상승 방편으로 액면분할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액면분할을 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가 성공 사례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는 변경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과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변경상장 후 각각 175.0%, 104.8% 증가했다. 액면분할 후 주가가 낮아져 매수 접근성이 쉬워졌고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유동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삼성전자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으로 500원으로 분할하게 되면 주가가 13만원선으로 낮아진다. 대신 유통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나 개인 투자자들도 수월해진다. 가격이 낮아져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접근성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은 당연지사다.

정부도 증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액면분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하나로 'KTOP30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종목을 구성하는 위원회가 발족됐다. KTOP30지수는 국내경제를 대표하기 위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30개 우량주가 대상이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단연 그 후보다. 그러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가격이다. 주가 가격이 '5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가격 조건을 낮춰 자연스럽게 대형주들의 액면분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KTOP30지수는 편입종목 주가를 평균해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수준보다 크면 지수가 고가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에 액면분할 없이는 지수 편입이 어렵다.

현재 삼성전자는 액면분할 이슈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3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은 액면분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액면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정경기자 jkljkl@



신한금융投, 中주식·공모주 동시 투자 펀드 출시 신한금융투자는 중국의 본토주식, 채권, 공모주에 동시 투자하는 'KTB중국플러스찬스펀드'를 4일부터 판매한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메르스 테마주 옥석 가려야… 백신株↓ 마스크株↑

메르스 관련 국내 백신종목은 치료법이 불투명하고 실질적 수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며 백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일 증시에서 진원생명과학, 바이오니아 등이 하한가를 쳤고 제일바이오도 10%대 약세를 보였다.

백신주가 주춤한 반면 마스크주는 판매증가 호조로 강세였다. 케이엠과 오공 모두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약세를 보였지만 반발매수세 유입되며 2.97%(1만1000원)오른 38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LG생활건강, 코리아나도 상승 마감했다.

메르스 공포에 관광객이 줄며 하락하던 여행주는 반발매수세에 상승했다. 대한항공이 강보합세를 보였고 아시아나항공은 보합 마감했다. 모두투어와 내일투어는 각각 6.20%, 1.77% 올랐다.

/김보배기자 bobae@

황창규, 지하철광고사업 결국 '백기' 들었다

구조조정 몸부림에도 적자 뒤늦게 사업권 반납 결정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지난해 공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정작 5년째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지하철광고대행업 자회사 스마트채널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업권을 포기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스마트채널은 지하철 광고대행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인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2010년 6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2012년에는 111억원, 지난해는 11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잇따른 손실 때문에 스마트채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보장한 연간 130억원의 기본 보장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스마트채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제기한 130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스마트채널과 연대 책임이 있는 KT의 올해 1분기 유동 자산은 4조7700억원이다.

이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그간 KT가 지급하지 않았던 기본 보장금을 모두 돌려받고 양사가 진행해왔던 1700억원대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채널은 올해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황 회장은 직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력구조조정에서는 서슴없이 나섰으나 경영 전략의 실패로 부실 계열사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의 이유로 자본잠식 계열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동영상 검색엔진 개발업체 KT계열사 엔써즈를 지난달 29일 매각하는 등 경영부실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KT 전체 직원 수는 2만3371명. 이는 전년 3만2451명보다 28%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해 1분기 KT의 직원급여 총액(임원 제외)은 5748억3900만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518억4100만원으로 낮아져 1229억98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전국 지사를 236개에서 79개로 축소했다.

홍성하 서울도시철도공사 법무팀 부장은 "기본 보장금을 모두 받고 양사의 합의가 잘 이뤄져 소송을 취하했다"며 "사실상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소송에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올해 말께 지하철 5,6,7,8호선의 새로운 광고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KT, 데이터 요금제도 SKT에 밀려

SKT
유·무선 무제한 통화 인기 출시 2주 만에 100만명 가입

KT
통신비 절감 강조했지만 요금제 허점에 여론 싸늘



이통사들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유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가장 후발 주자인 SKT는 승승장구하는 반면 KT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2주 만에 가입 고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통3사 중 가장 최단 기간에 최다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반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 한지 한달(5월 8일~6월 3일)이 돼가고 있는 KT는 고전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2일 기준 가입자는 대략 60만명이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는 출시 하루 만에 15만명, 일주일 만에 50만 명이 가입하면서 신기록을 세워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요금제의 폭발적 인기 요인으로 "출시 할 때부터 유·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데이터 '자유자재'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는 이통3사 중 가장 빠르게 통신비 절감 효과와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며 지난 8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내놨지만 유선 통화는 월 30분만 무료로 제공하고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TV 서비스 제공에 차등을 두는 등 요금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여론의 지적이 나오자 지난 1일 KT도 보완된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알리며 유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로 변경한 고객 100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요금제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유·무선 무제한 통화(51%)'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초로 2만원대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지인들과 나눠쓸 수 있는 서비스인 '리필하기'·'선물하기' 등 데이터 '자유자재' 서비스가 37%, 최신 콘텐츠 혜택 9% 순인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와 콘텐츠 등 SK텔레콤의 차별적인 혜택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문경기자 hm0108@

LG전자, 콜라 한 캔 무게 '미니빔' 선봬

270g 휴대성 극대화

LG전자는 3일 콜라 캔 한 개 무게와 비슷한 초경량 '미니빔(모델명 PV150G)'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초경량 '미니빔'은 270g의 가벼운 무게에 내장 배터리를 적용해 휴대성과 이동성을 높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WVGA(854x480) 해상도와 최대 밝기 100안시루멘(ANSI-Lumens), 10만 대 1 명암비의 밝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또 화면을 쏘는 각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영상의 찌그러짐 현상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오토 키스톤 기능을 적용해 초보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한 내장 배터리는 전력공급이 불편한 캠핑장의 텐트 안에서도 영화 한 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초경량 '미니빔'은 주변기기와의 연결성도 뛰어나다. HDMI, USB, MHL 등의 유선 연결은 물론 미라캐스트, WiDi 등 무선 연결도 가능하다.



LG전자는 3일부터 콜라 캔 한 개와 비슷한 270g의 초경량 '미니빔(모델명 PV150G)'을 출시했다. LG전자 모델이 저울로 콜라 캔과 미니빔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초경량 '미니빔' 가격을 39만 9000원으로 책정했다.

허재철 LG전자 한국영업본부 한국HE마케팅FD담당 상무는 "더 가벼워진 초경량 '미니빔'은 스마트폰처럼 항상 휴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편리한 휴대성에 뛰어난 화질까지 갖춘 다양한 미니빔으로 소형 프로젝터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삼성, 메르스 우려 신입사원 수련회 연기

모니터링·출장 자제 등 기업들 확산방지 총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우려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비상 대책에 돌입했다.

국적 항공사들은 '메르스 대응팀'을 구성했다. 3일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10여명의 임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여객서비스·운항·객실·정비·종합통제·영업·홍보·항공의료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여한다. 대한항공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30여명 안팎의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실무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인원이 메르스와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수천 사장에게 직보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에 신입사원 대상 하계수련대회를 연기했다. 삼성에 따르면 4~5일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측은 "시도 교육청이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원의 단체이동과 집단활동이 수반되는 하계수련대회는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은 이날 오후 6시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삼성캠퍼스톡'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삼성은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 참석 예정자들에게 통보했다. /조한진기자 hjc@

FCA 코리아, 지프 등 9종 엔진오일 교환

FCA 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는 크라이슬러-지프의 9개 차종 대상 엔진오일-필터 교환 프로그램을 3일 개시했다.

10월 30일까지 한정수량으로 판매되는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은 3회의 합성유 엔진오일·엔진오일 필터 교환, 2회의 에어클리너 필터 교환을 구매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과 엔진오일 필터 무상 교환 서비스는 1회 추가로 제공된다.



적용 차종은 크라이슬러 300C, 지프 컴패스, 랭글러, 그랜드 체로키 등 총 9개 모델, 11개 연식이다.

차종에 따라 16만~36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이건희 회장, 재활훈련 한다

사장단 회의 브리핑서 "안정적 상태 회복"

이건희(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활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날 인터넷매체 더팩트가 보도한 이 회장의 투병 근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됐고 지속적으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 회장은 인공호흡기나 의료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호흡을 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과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VIP실에서 휠체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쓰러진 이후 언론매체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이 회장의 공식적인 사진 공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팀장은 이 회장의 근황을 보도한 매체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인의 경우 초상권이 사인처럼 엄격하게 보장이 안 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사업구조 개편 관련 합병 시너지 효과가 없고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팀장은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와 투자자가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아닌 것 같다"며 "전체 의견을 갖다가 거두절미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간혹 보도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삼성페이, 9월 韓·美 우선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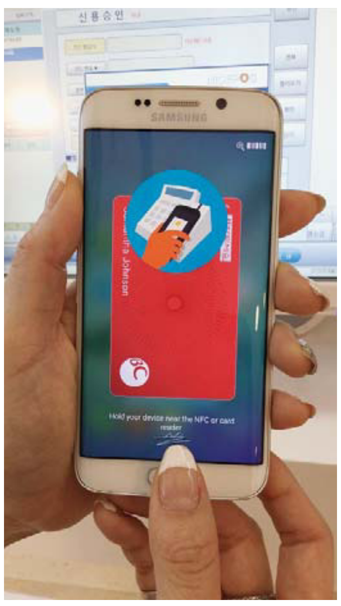
삼성 투자포럼서 발표 솔루션 개방 긍정 검토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가 오는 9월 한국과 미국에 우선 출시된다.

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투자포럼 2015'에서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오는 9월쯤 (삼성전자의) 다음 플래그십 모델을 론칭할 때 이슈가 될 것"이라며 "한국와 미국에 우선 출시하고 중국과 유럽, 호주, 남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페이의 강점으로 안전성, 범용성, 편리성 등을 꼽았다.

삼성페이는 1회용 핀넘버 방식과 삼성 녹스 플랫폼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



삼성페이 실행화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루프페이를 인수했다.

이에 삼성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은 물론 MST 방식을 더해 기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사장은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캐피털원, 마스터, 비자 등 미국 내 주요 은행은 물론 신용카드사들과도 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삼성페이 솔루션을 개방 여부에 대해 "탄력이 붙을 때까지 기다린 뒤 필요하면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페이는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캐시백과 함께 쿠폰 등을 제공하고 대신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임은정기자 eunj71@

누워서 호흡하는 사진만으로 '안정적' 단정지을 수 있나?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기자>

반가운 소식이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증권가 찌라시 등에 '사망설'이 거론되는 등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럴 때마다 삼성전자의 주식은 요동쳤다. 이 회장이 쓰러진 후 온 국민이 삼성그룹과 재벌의 미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지난 2일 이 회장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건재'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대감이 컸던 탓일까. 이 회장의 모습은 예상했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또 건재(健在)하다는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를 뜻하지만 사진 속 이 회장은 휠체어에 앉거나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은 모습이 아닌 병상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 있는 모습이다.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찾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이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랐던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지 1년을 맞은 지난 5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발병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됐다. 주변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재활운동을 하고, 각종 검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주변의 자극에 일정 정도 반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삼성을 그동안 초일류 기업으로 만든 이 회장의 건재한 모습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하고 기대해본다.

한국지엠, 韓 감성 파고들까

한국계 제이슨 김 사장 선임 15일부터 부평 본사서 근무

한국지엠이 최초로 한국계 사장을 선임했다. 한국 감성과 정서를 파고들 새로운 인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한국지엠주식회사는 제임스 김(사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한국지엠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Chief Operating Officer)로 선임한다고 3일 밝혔다.

제임스 김 사장은 15일부터 한국지엠 인천 부평 본사에서 근무하며 한국지엠 이사회 의장인 세르지오 호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된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제임스 김 사장은 한국과 미국의 기술, 컨설팅, 제조 및 통신 회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줬다"며 "새로운 제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임스 김 사장은 한국지엠 사업 운영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09년부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국 사업을 총괄하는 CEO로 재직했다. 또한 그는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야후의 100% 투자 자회사인 오버추어(Overture)의 아시아지역 부사장과 오버추어코리아 CEO를 역임했으며, 이어 야후 코리아 CEO로 재직한 바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



LG전자가 대한, 민국, 만세 삼둥이와 함께 '휘센 제습기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한다.

LG, 제습기도 삼둥이 내세운다

에어컨 캠페인 이어 재등장

LG전자는 대한, 민국, 만세 삼둥이와 함께 '휘센 제습기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삼둥이는 지난달 휘센 듀얼 에어컨 캠페인에 이어 제습기까지 휘센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서 활약하게 됐다. 이번 휘센 제습기 디지털 캠페인은 대한, 민국, 만세와 휘센 제습기 히트 상품 3개의 모델이 각각 짝을 지어 촬영한 세 편의 영상을 공개한다.

삼둥이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해 제습기가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제습기의 성능을 삼둥이의 초능력으로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LG휘센 제습기의 다양한 기능과 제품을 통해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쾌적함을 담았다.

한편 올 4월에 출시한 17ℓ LG 휘센 인버터 제습기(DQ170PBS)는 실내 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제습', 장마철에 덥고 습한 실내를 빠르게 제습하는 '쾌속 제습', 젖은 신발과 옷장 틈새를 건조하는 '집중 건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양성운기자 ysw@

LS전선, 싱가포르서 500억 규모 케이블 수주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45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지중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케이블 납품부터 시공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으로 동남아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주롱(Jurong) 지역에 설치된다. 싱가포르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력 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력 케이블은 땅, 하늘, 바다를 기준으로 지중, 가공, 해저 케이블로 각각 불린다. 이 중 지중 케이블은 도심 지하에 매설되는 66킬로볼트(kV) 이상 초고압 케이블로 500kV까지 상용화가 이뤄진 상태다.

/양성운기자

30돌 맞은 서울 랜드마크 63빌딩

한화 "면세점 출사표로 제2도약"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지난 5년(2010~2014년) 동안 63빌딩·여의도·영등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연평균 1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시내 관광객 증가율인 13% 보다 높은 수치다.

여의도는 잠재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소로 꼽힌다.

한강 유람선, 노량진 수산시장, IFC몰, 국회 의사당, 여의도 봄꽃 축제, 서울세계 불꽃축제 등 서울을 대표 하는 명소와 축제들로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달 31일로 개관 30주년을 맞은 63빌딩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들어갔다.

한화갤러리아의 시내면세점 사업 부지로 63빌딩이 선정된 것이다.

한화그룹 측은 "시내면세점이 63빌딩에 오픈될 경우 63빌딩이 갖는 교통 주차·관광 인프라 강점을 내세워 기존 도심으로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관광 컨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측은 서울의 획일화된 관광 프로그램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한강유람선, 한류스타 초청콘서트, 에코(힐링)투어, 노량진 수산시장 투어, 여의도 봄꽃 축제 등 13개의 신규관광 진흥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쌍용 '티볼리 전기차' ENVEX전시회 출품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 기술을 선보였다.

쌍용차는 서울 코엑스에서 5일까지 열리는 3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15)에 티볼리 EVR을 전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티볼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티볼리 EVR의 동력계통은 80kW급 전기모터와 25kWh 고전압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고효율 엔진 제너레이터가 자가발전해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주행거리 확장 기술을 활용, 최대 400km(최고속력 150km/h)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EV) 모드 시 최대 125km까지 순수 전기에너지만으로 주행 가능하다.

쌍용차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Range Extender 시스템을 차세대 친환경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사측은 "EVR은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전기차가 갖고 있는 충전 인프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앞줄 가운데 오른쪽)과 쇠렌 스코우 머스크 라인 사장(앞줄 가운데 왼쪽), 양사 관계자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 제공

대우조선, 1조9564억 초대형 컨선 11척 수주

정성립 사장, 정식취임 이후 첫 초대형 계약체결

대우조선해양이 1조9564억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해운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사로부터 1만9630 TEU(1 TEU는 약 6m 컨테이너 1개 크기)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총액은 약 18억 달러(1조9564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매출액 대비 11.7%에 해당한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400m, 폭 58.6m, 깊이 16.5m 규모다.

모두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8년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전날(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과 현시한 노동조합 위원장, 쇠렌 스코우 머스크 라인 사장 등이 참석했다.

머스크 그룹은 2003년 대우조선해양과 자동차 운반선 계약으로 첫 인연을 맺은 이후, 2011년 1만8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한 바 있다.

머스크 그룹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54척의 선박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해 현재 13척의 선박이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다.

올해 들어 대우조선해양은 총 23척, 35억1000만 달러 상당의 상선을 수주했다.

정 사장은 "이번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 체결로 액화천연가스(LNG)선에 이에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모두가 인정하는 조선해양회사임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린 쾌거"라고 기뻐했다.

/이정필기자 roman@

에쓰오일, 천연기념물 보호에 2억6000만원 후원

에쓰오일은 3일 서울 마포구 본사 대강당에서 2015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관련 기관에게 후원금 2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장기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8년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매년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기금을 지원하고 직원과 고객 가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철 에쓰오일 수석부사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올해에는 어려운 여건에도 생태계 보호와 연구활동에 헌신하는 여러 환경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활동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생태계 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의 천연기념물 지킴이 활동은 ▲ 보호종 전문단체 연구보호활동 지원 ▲ 직원 및 고객 가족 천연기념물지킴이 봉사활동 ▲ 대학생천연기념물지킴이단 ▲저소득가정 어린이 천연기념물 교실 ▲ DMZ 생태보호를 위한 군부대 자매결연 등이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



현대모터스튜디오에 설치된 제네시스 분해작품. /현대차 제공

현대차, 모터스튜디오서 제네시스 분해작품 전시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모터스튜디오에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에브리웨어'의 작품 '앙상블'을 9월 30일까지 전시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1층에 전시된 이번 작품은 제네시스 쿠페를 활용해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내부를 여행한다'는 주제로 구성됐다.

해당 작품은 제네시스 쿠페를 분해한 차체 내부를 고정·이동 카메라로 촬영한 뒤 대형 스크린에 전송해 차량 속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건물 3층에서 5층까지 창가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전시작품 '카 로테이터'는 기존 쏘나타 차량에서 3층은 제네시스, 4층은 쏘나타, 5층은 i40 등 차종으로 교체했다.

/이정필기자

한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한화(대표이사 심경섭)는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봉사에는 심 대표를 비롯한 한화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매결연 묘역을 방문해 헌화와 묘비 닦기 등의 묘역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심 대표는 "한화는 자유수호와 안보강화의 초석이 되기 위해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는 국가 방위력 증강을 담당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11년부터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2회 이상 묘역정화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2000억 선풍기 시장을 잡아라" 2000억원 규모의 선풍기 시장, 최대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업체들이 냉방 본연의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정관장, 세계 인삼 브랜드 1위로 우뚝

시장 점유율 34.7%…'홍상점' 15초에 1개꼴로 팔려

KGC인삼공사(대표 김준기)는 홍삼 브랜드인 '정관장'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로부터 세계 인삼 소매매출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유로모니터의 2015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세계 인삼 소매시장은 약22억7500만달러(약 2조52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관장 매출은 8억800만달러(약 8950억원)로 34.7%를 기록했다.

유로모니터의 '인삼' 카테고리는 소매점에서 판매된 가공인삼 제품으로 100% 제품(농축액 또는 뿌리삼 등)만을 포함한다. 인삼 카테고리 내 국내 업체가 1위를 공식 인정받은 것은 정관장이 처음이다.

정관장 브랜드 가운데 '인삼 100% 함유제품'은 홍삼정을 비롯해 홍삼정타블렛·뿌리삼 등이다. 홍삼농축액 100%만으로



구성된 홍삼정은 매년 100만병 이상 판매되는 베스트셀러로 15초에 1병꼴로 판매될 정도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소프트뱅크, 쿠팡에 1조 1000억 투자

전국단위 물류센터 구축 다이렉트 커머스 실현 등



쿠팡(대표 김범석·사진)이 IT기업인 일본의 소프트뱅크(회장 송정의)로부터 약 1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5월 미국 '세쿼이어캐피탈'로부터 1억 달러, 11월 자산운영전문회사 '블랙록'으로부터 3억 달러 투자 유치에 이어 이번 소프트뱅크 투자 유치에 성공함으로 1년간 총 14억달러(한화 1조 55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지난 한 해 글로벌 벤처 단일 투자유치금액 기업 순위로는 우버·샤오미에 이어 3번째이다.

쿠팡 측은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결정한 배경으로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 구축과 배송 전담직원을 통한 자체배송 시스템 완성 ▲판매대행 및 상품 매입 후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책임지는 '다이렉트 커머스'(Direct commerce) 모델 실현 ▲거래액 중 최대 81%, 평균 75%로 높은 모바일 거래 비중 달성 등 국내 모바일 커머스 리더십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 2500만 ▲해외 R&D센터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IT기술력 보유 등을 꼽았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소프트뱅크는 전세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고,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적인 사업가들을 지원해 성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쿠팡이 이커머스를 더욱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김범석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소프트뱅크의 글로벌 전문성과 네트워을 통해 쿠팡의 성장세가 더욱 빨라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소프트뱅크가 전세계적으로 훌륭한 IT 투자자인 만큼, 쿠팡의 재무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지니스를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메르스 중동선 대부분 병원감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환자 발생 병원 명단 의료진에만 공개해야"



메르스(MERS·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 괴담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최로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메르스 발병 현황과 관련해 병원 내 유행 상태"라며 "지역사회 내에서 번지는 양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중동도 대부분 병원 내 감염이었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퍼져 나간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기를 매개로 한 메르스 감염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는 공기 전파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사우디 등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두 번째 병원은 특수하다. 보통 한명의 환자가 2m 안에서 비말(침)로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의료진의 손이나 청진기 등의 매개물 또는 환자가 쓰던 물건 등을 통해 감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걸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유행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를 비교해 "2009년 사스는 시간이 지난수로 전염력이 매우 높았지만 메르스는 다르다"며 "오히려 자택 격리 조치가 국민들의 공포를 키운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메르스에 노출된 사람을 철저히 관리하는 감시체계 구축이 강조됐다.

이재갑 교수는 "최악의 상황은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전제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메르스 병원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 의료기능 유지를 위해 병원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에게만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천병철 교수는 "메르스 발생 병원이 일반인이게 노출될 경우 중요한 치료를 앞두고 있는 해당 병원내 입원환자들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도 진료를 못하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장욱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메르스에 노출되지 않은 병원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짜왕' 대박 행진… 5월 매출 100억

농심 "연 매출 1000억원 파워브랜드 육성 목표"



농심 짜왕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농심에 따르면 신제품 짜왕의 5월 한 달 판매액(내부 출고 매출 기준)이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농심 내부 매출 기준으로 신라면 봉지면(255억원)에 이어 2위다.

짜왕은 특유의 굵은 면발과 진한 간짜장 소스로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 등 판매 채널을 가리지 않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농심은 현재 기존 안성과 부산공장에 더해 신라면 생산기지인 구미공장의 초고속 라인까지 동원해 짜왕을 24시간 생산 중이다. 농심 관계자는 "늘어나는 주문에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으나 일부 소매점에는 원하는 물량을 전량 공급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파리바게뜨, 맨해튼 '57번가점' 개점

195㎡ 규모 카페형 베이커리 하반기엔 가맹사업도 시작



미국 맨해튼 지역에 7번째 파리바게뜨 매장이 들어섰다.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미국 뉴욕 콜럼버스 서클 지역에 파리바게뜨 57번가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57번가점은 195㎡규모의 카페형 베이커리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으로 유명한 원형 광장인 콜럼버스 서클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럼버스 서클 지역은 링컨센터와 센트럴파크 등이 위치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000명이 넘는 곳이다.

SPC그룹은 현재 미국 전역에 4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맨해튼 지역에는 미드타운·어퍼웨스트사이드·타임스스퀘어·파크애비뉴 등의 주요 상권에 매장을 개점했다. SPC그룹에 따르면 하반기에 가맹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미국법인 관계자는 "맨해튼의 주요 상권에 진출하며 현지인들로부터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파리바게뜨를 미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사랑 받는 브랜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하나비와 마츠리, 그리고 먹방의 향연
<花火> <祭り>

日도쿄, 7~8월 주말마다 행사 열려 불꽃놀이·전통문화체험 등 다채

한여름 도쿄의 밤은 설레임과 특별함이 가득하다. 대표적인 이벤트로서 하나비 (불꽃놀이)와 나츠 마츠리 (여름 축제)를 들 수 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화려한 색채로 밤하늘을 장식하는 불꽃놀이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인기다.

하나비는 세계에서 인정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이 시즌에 맞춰 도쿄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 형형색색 불꽃의 색채와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분위기 연출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두에게 큰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다.

하나비가 시작되기 전 두근거림과 기대감이 고조되며 한발 한발 올라가는 불꽃을 보며 누구나 할 것 없이 환성을 지르게 한다. 화려한 불꽃 쇼가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잔상을 함께한 가족, 연인, 친구 사이에 또 하나의 추억으로 공유할 수 있다.

7월에서 8월에 걸쳐 도쿄 도내에는 크고 작은 불꽃놀이 대회가 주말마다 열리므로 미리 조사를 해서 참여해보자. 어디서도 맛 볼 수 없는 도쿄의 하나비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도쿄에서의 또 하나의 여름 이벤트는 옛스러운 일본의 분위기를 체험 할 수 있는 축제, 나츠 마츠리다. 여름이면 볼 수 있는 유카타 차림의 여성들과 시원한 진베 차림의 남성 모습이야말로 일본의 여름을 말해 주는 대표적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마츠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길거리 음식들. 길게 이어지는 야타이(포장마차)에서 팔고 있는 야키소바와 타코야키, 과일 사탕 등의 냄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또한, 종이막 뜰채로 금붕어나 작은 고무공을 건지는 놀이 등 지금은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그리운 놀잇거리도 풍성하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으로, 어른들에게는 무언가 향수어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

복작복작 한걸음 떼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미가 있어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여름밤의 활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한국에 비하면 다소 후덥지근한 도쿄일지라도, 한여름의 뜨거운 추억을 만들기엔 도쿄만한 곳이 없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본오도리 축제의 한 장면. ©TOKYO CONVENTION&VISITORS BUREAU



"아삭하고 달콤한 초당옥수수 드셔보세요" 3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과 아동 고객이 '초당옥수수(Super Sweet corn)'를 선보이고 있다.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초당옥수수는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3년 연속 완판, 지난해 155.3%의 매출 신장을 했다. /홈플러스 제공

오리온, 中·베트남 등 1분기 매출 1350억

오리온(대표 강원기)이 고래밥·초코송이·오!감자 제품이 지난 1분기 중국·베트남·러시아에서 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오리온 측에 의하면 고래밥은 중국에서만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했다. 또 오!감자는 중국 내 성형감자스낵류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초코송이는 러시아에서 연간 3000만개가 넘게 판매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 장수 브랜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쳐 개선해 온 품질관리와 맛 개발, 원료분석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있었다"며 "앞으로 철저한 소비자 조사와 차별화된 현지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동대문, 면세점후보지 소식에 '반색'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외국인 매출 상승 기대
일부 상인 회의적 시각도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면세점 후보지로 동대문 일대를 대거 지목한데 대해 동대문 시장 상인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상인들은 그간 패션산업 집적지이자 쇼핑관광의 명소였던 동대문 시장이 대형 유통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해 왔다.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면세점 유치가 확정되면 대형 유통 채널 확보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증가와 이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 롯데피트인과 맥스타일, 제일평화시장 등 면세점 후보지에서 만난 일부 상인들은 동대문의 면세점 유치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롯데피트인에서 만난 한 상인은 "수년간 주 고객인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한만큼 면세점이 입점돼 대형 유통 채널이 확보되면 운영에서는 전문 노하우가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맥스타일 상인은 "화장품과 패션 품목이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면세점이 입점하면 이 부문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화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최근 중국인들이 고가 상품보다는 화장품 등 저가 상품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면세점 입점은 이런 면에서 동대문 시장의 또 다른 매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대문 상인들은 또 요우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위치와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쇼핑 명소를 방문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맞딱뜨리는 이동거리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면세점 입점을 통한 외국인 매출 비중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동대문 시장(55.5%)이다.

지난해 동대문 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수는 약 650만명으로 동대문 상가는 매출의 40%가량을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올리고 있다. 동대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 8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면세점 후보지에서 제외된 일부 주변 상인들은 면세점 입점에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화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면세점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현재 면세점 후보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점이 들어오면 폭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창간 13주년 相生

어음 X·협력사 기술탈취 X·계약서에 '갑-을' X

'3無'로 상생 실천하는 KT&G

원재료 가격 상승시 협력사 계약 금액 올려주기도
'담배 품질측정장비' 개발해 중기 해외 판로 개척
생산정보 시스템도 공유, 효율적 자원관리 도와

명절 전 KT&G(대표 민영진) 지출 담당자들의 손은 분주해진다. 협력사들도 '함께 즐거운 명절'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금을 보름 정도 앞당겨 조기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절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엔 없는 것이 있다. 협력사에 대한 결제 어음이다. KT&G는 매월 전액 현금으로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특히 영세한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KT&G는 또한 협력사의 고충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계약체결 후 90일 단위로 원재료 가격 상승시 이를 반영해 구매계약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강소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도 KT&G와 협력사의 관계에서는 머나먼 얘기이다.

KT&G의 '상생경영'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소기업들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이뤄낸 눈부신 성과들이다.

KT&G는 2013년 국내 최초의 담배필터용 '심리스(seamless:이음선 없는) 향캡슐'을 벤처기업 에이티랩(대표 김영택)과 공동으로 개발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에쎄 체인지' 등의 제품에 적용된 이 캡슐은 담배필터 안에 장착된 캡슐을 터뜨리는 순간 새로운 맛을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 그동안 담배에 들어가는 캡슐은 국내에는 상용화 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KT&G는 4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에이티랩에 지원하는 등 6개월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에이티랩이 기존에 보유하고있던 화장품용 향캡슐 제조기술을 활용한 담배필터용 '심리스 향캡슐'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KT&G는 향캡슐을 자체적으로 생산, 원가를 60% 가량 절감하게 됐고 외화 절감에도 성공했다.

더불어 벤처기업 에이티랩도 응용기술 축적을 통해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향 캡슐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KT&G는 연구용·품질 측정장비 전문 제조업체 대성글로벌과 2년이 넘는 공동 연구·개발 끝에 국내 최초의 담배 품질 측정장비 'KARDIEN(카디언)'도 탄생시켰다. 이 기기는 담배 한 개비의 무게, 둘레, 길이 등을 세밀하게 측정하는 필수 장비다. 이번 개발로 그동안 해외에서 조달해오던 것을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KT&G와 필터제조기 제작 회사인 JK는 원활한 해외 수출을 위해 필터제조기와 'KARDIEN(카디언)'을 세트 상품으로 구성해 판매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소규모 국내시장에 머물던 대성글로벌과 JK는 KT&G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라는 효과를 얻게 됐다. KT&G 입장에서도 품질 측정 장비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원가는 20% 이상 낮추는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KT&G의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갑'과 '을' 명칭 대신 '회사' 또는 '공급사' 등으로 바꿔 표현하도록 규정한 사내 지침 때문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용어선택에서부터 KT&G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꾀했다.

뿐만 아니라 KT&G는 생산계획과 재료품 재고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생산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해 이를 협력사에 오픈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협력사는 KT&G의 생산계획과 재료품 재고수량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재료품 생산에만 집중하게 됐다. 이는 궁극적으로 KT&G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민영진 KT&G 사장은 '고객가치 2.0'선을 통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협력사에 대한 지원 또한 지속 늘려가고 사회 소외계층, 취업희망자, 농가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지원을 통해 진정성 있는 상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진기자 green@

더페이스샵 여름 화장품 반값

9일까지 '헬로 써머 세일'
자외선 차단제 전품목 50%
미백제품·CC크림 30% 할인



더페이스샵은 4일부터 6일동안 '헬로 써머 세일(Hello Summer Sale)'을 한다고 3일 밝혔다.

9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스 에어퍼프 선'을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 전품목과 '젤쇼크 네일' 전품목 등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아이스 에어퍼프 선 SPF50+ PA+++'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10만 개 이상 판매된 올 여름 주력 자외선 차단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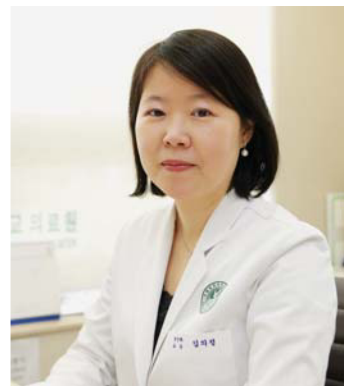
이 외에 '화이트 씨드' 전품목, '블란클라우딩 하얀 수분 크림' 등 미백제품, CC크림 등도 30% 할인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

공부 안 되는 이유 낱낱이 파헤친다

11일 정신건강 강좌


3번째 주제 강의자로 나서는 김의정 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대목동병원이 운영하는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 최희연)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공부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학부모 공개강좌를 연다.

'공부 왜 안되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공부가 힘든 아이들(강병훈 서울연마음클리닉 의원 원장) ▲공부 왜 안될까?(서현주 마인드케어의원 원장) ▲공부 이렇게 해보자(김의정 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고, 학습장애를 비롯한 아이들의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다양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이번 공개 강좌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진행하는 행사다.

지역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재능 기부를 한다.

이번 강좌는 성적 부진과 학습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학업 수행능력 부진과 이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02-2061-8881)하면 된다.

/복현명기자 hmbok@

관광公 "한국 MICE산업 우수성 세계에 알린다"

KOREA MICE EXPO 2015

내일까지 일산 킨텍스서
업체 240개·바이어 360명



지난해 개최된 KOREA MICE EXPO 2014에서 바이어들이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MICE 전문 전시박람회인 'KOREA MICE EXPO 2015'가 6월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6회째인 이번 행사는 240여개의 MICE 관련 기관·업체와 36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MICE산업 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센티브여행의 주요 타깃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유력 바이어 유치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대형 인센티브단체의 지역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해외 바이어들은 행사 전후에 진행되는 팸투어에도 참가하여 한국의 MICE 첨단시설과 관광매력을 직접 체험한다.

이색 장소에서의 환영리셉션과 다양한 한국공연 관람, 지역 홍보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MICE 관련 산업인들을 위한 K-MICE 포럼도 운영된다. '국제행사 유치사례와 지역 파급효과'·'전문가들이 전하는 행사기획 노하우' 등의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기조연설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빅이벤트 유치 성공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MICE 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SNS를 활용한 MICE 행사 유치 방안'을 주제로 대학생 MICE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 코리아MICE뷰로 김기헌 실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 MICE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 MICE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MICE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KOREA MICE EXPO 2015'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K-MICE 홈페이지(http://k-mice.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한미약품, 당뇨신약 '퀀텀프로젝트' 발표

5~9일 제75회 美 ADA 참가
신약 4개·연구과제 11개 공개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5~9일 미국 보스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75회 미국당뇨학회(이하 ADA) Scientific Session서 퀀텀프로젝트 등 4개 당뇨신약과 11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GLP-1 계열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월1회 용법 등 약효지속성과 체중감소 효과 등을 확인한 후기2상 연구과제(3건)를 비롯해, 1주제형 인슐린으로 개발 중인 LAPSInsulin115, 에페글레나타이드와 LAPSInsulin115를 결합한 LAPSInsulin Combo 등 퀀텀프로젝트의 주요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퀀텀프로젝트와 함께 GLP-1과 Glucagon 결합제인 LAPSGLP/GCG의 임상1상도 발표한다.

11건 연구과제 중 4건은 구연으로, 7건은 포스터 등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최치선기자

에센시아 카사 '소이캔들' 드라마에 떴다

MBC '여왕의 꽃' 협찬



고급 향기브랜드 에센시아 카사가 MBC 주말드라마 '여왕의 꽃'에 소이캔들(사진)을 협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23회에서는 박민준(이종혁분)과 레나정(김성령분)이 신혼여행에서 고급스런 캔들을 배경으로 욕조 속에 몸을 담그고 함께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방송됐다.

에센시아 카사 측은 "프리미엄급 향기와 이를 이용한 제품군을 생산해 왔으며 이번 협찬을 통해 드라마 속에서 멋진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MBC 일일드라마 '꼭 너 같은 딸'에도 소이왁스와 디퓨져를 협찬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신데렐라,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죠

영화 '은밀한 유혹' 임수정



'은밀한 유혹'은 신분과 재력을 갖춘 남자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여성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로맨스와 서스펜스를 섞은 범죄 멜로 영화다. '내 아내의 모든 것' 이후 휴식을 취하던 임수정(35)은 여성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 끌려 작품을 선택했다.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환상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갔다.

"여자들은 한번쯤 신데렐라가 되는 상상을 하잖아요. 저도 여자라서 '좋은 왕자님이 오면 어떨까?'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웃음).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괜히 더 설레고요. 하지만 저는 꿈에서 빨리 깨어 나는 편이에요. 꿈을 오래 꾸지는 않거든요."

임수정이 맡은 주인공 지연은 비운의 여인이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영화는 지연이 젊고 매력적인 남자 성열(유연석)로부터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임수정에게는 첫 스릴러 도전이다.

"지연은 물결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계속해서 흔들리는 인물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쫓다 마주하게 된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렇게 감정에 휘말려 흔들리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캐릭터가 복잡한 상황에 빠져드는 것처럼 저 자신을 한 번 영화에 던져보고 싶었어요."

공포·멜로·로맨틱 코미디·액션 등 임수정은 다양한 장르를 경험해왔다. 그러면서도 작품마다 섬세하게 감정을 표현해 대중은 물론 영화계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 감정의 폭이 큰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일까. 그러나 임수정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닌 스스로 도전의식이 컸다"고 말했다. 극도의 불안 같은 쉽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다보면 "영혼까지 빠져나가는 기분"에 털썩 주저앉아 울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느끼는 희열 때문에 배우라는 직업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



여성의 욕망·환상 다룬 소재에 공감
매 신마다 복잡·다양한 감정들 연기
20대 경험 큰 자산… 30대는 여유롭게

'은밀한 유혹'을 마친 뒤에는 "스스로 보여줄 게 많다는 것"을 느꼈다. 매 신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과 모습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부터 불안과 두려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이기적인 면모, 그리고 팜므파탈의 매력까지. 그야말로 임수정의 '모든 것'을 이 한 편의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공감할 캐릭터를 연기한 만큼 여성 관객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기를 바란다.

임수정은 한국 영화감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작업하고 싶은 배우다. 김지운, 박찬욱, 허진호, 민규동 등 한국 대표 감독들과 함께 한 필모그래피가 이를 증명한다. 물론 그녀도 처음에는 오디션을 보는 신인 배우였다. 연기 전공도 아니었던 그녀는 오디션과 영화 현장을 실습의 장으로 삼아 몸으로 연기를 익혔다. 그래서 그녀는 "20대의 경험과 필모그래피가 큰 자산이 됐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일이 너무 많았던 탓에 20대를 헛헛한 마음으로 보냈다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30대가 된 지금은 여유를 갖고 작품에 임하려고 한다. '내 아내의 모든 것'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것도 연기에 쏟아 부을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였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기타도 치고 꽃꽂이도 배웠다. 평온한 일상이 곧 임수정에게 가장 큰 연기 원동력이다.

"영화를 통해 자유롭게 연기를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보다 분명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직도 하고 싶은 작품이나 캐릭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작품도 자주 할 생각입니다(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호호호비치 제공

star bag

소속사 '7년 의리' 지켜



아이유가 오는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로엔과 7년간 함께해 온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계약금 없이 재계약이 완료됐다. 아이유는 앞으로 3년간 로엔 전속아티스트로 활동한다.

7년 만의 연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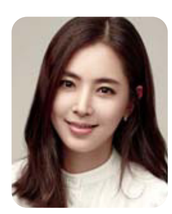
배우에서 쇼핑몰 CEO로 제2의 삶을 살던 **진재영**이 3일 주상욱·전수경이 소속된 메이딘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7년 만에 연기활동을 재개한다. 진재영은 1995년 광고 모델로 데뷔해 영화 '색즉시공'과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 등에 출연했다.

정규앨범으로 컴백



4인조 걸그룹 **걸스데이**(소진·유라·민아·혜리)가 1년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타이틀곡 선정이 길어져 애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7월 6일 정규앨범을 들고 컴백한다고 3일 밝혔다. 걸스데이는 7월 6일 쇼케이스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 소속사와 재계약



배우 **한채아**가 현 소속사인 가족액터스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한채아는 "회사의 아낌없는 배려와 존중으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쌓였다. 창립 후 굳건한 의지로 회사를 이끌어준 양병용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사랑에 빠진 연예계… 때아닌 핑크빛 열풍

이나영·원빈 깜짝결혼 이어 윤정희, 안재욱도 웨딩마치

차유람·이지성 결혼 발표 태양·민효린 열애 소식도




이나영·원빈과 민효린·태양.

초여름 연예계가 때아닌 사랑에 빠졌다. 깜짝 결혼부터 예상 못한 열애 소식까지 핑크빛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시작은 이나영(36)과 원빈(38)의 깜짝 결혼 소식이었다. 2013년 열애 사실을 인정한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이들 커플은 지난달 30일 깜짝 결혼을 발표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가족 중심의 조용한 결혼식을 치르고자 극비리에 식을 준비했다. 원빈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의 푸른 밀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둘의 소속사 이든나인은 "이들의 성장과 삶의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누구보다 간절히 행복을 빌어줄 가족들 앞에서 경건하게 결혼서약을 나눴다"며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가마솥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국수를 나눠 먹었다"고 전했다.

배우 윤정희(35)도 같은 날 발리에서 6세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했다. 윤정희는 지난해 가을 지금의 남편을 만나 8개월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양가 친인척만 모여 조촐하게 식을 올린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마친 뒤 서울 잠원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계획이다.

당구 선수이자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인 차유람은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의 결혼 발표로 세간을 놀라게 했다. 특히 차유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모태솔로임을 밝힌 바 있어 결혼에 대한 놀라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13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오는 20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식을 올릴 예정이다.

또한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로 인연을 맺은 배우 안재욱(44)과 최현주(35)는 지난 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개그우먼 정주리(30)는 7년 동안 만나온 직장인과 지난달 31일 결혼했다. 임신 3개월이라는 겹경사 소식도 함께 전했다.

열애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룹 빅뱅 멤버 태양(27)과 배우 민효린(29)은 2일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2년째 교제 중인 두 사람은 그동안 데이트 목격담 등으로 열애설이 제기된 바 있다. YG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탄생한 연예계 커플로 관심이 뜨겁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 KBS2 '해피투게더 3'

오후 11시10분

연예계 깜짝 사제지간

'실력파 스승과 비주얼 제자' 특집이다. 대한민국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과 그의 제자 중 가장 뺀질했던 꽃미남 록커 정준영, 조인성을 키워낸 연기 지도의 신 류승수와 원조 얼짱에서 충무로 호러 퀸으로 변신한 박한별이 출연해 매력 발산에 나선다.

/정리=하희철기자

◆ tvN '문제적남자-뇌섹시대'

오후 11시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S그룹 광고직 입사 시험 문제를 대공개한다. 허섹남무 팀과 뇌몬스터 팀의 대결로 실전 광고 제작에 나서 프로그램 홍보에 도전한다.



◆ MBN '리얼다큐 숨'

오후 9시 40분

음식을 담는 도구로만 여겼던 그릇을 건강한 그릇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생활 속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몸에 좋은 그릇 제작 현장을 밀착 취재한다.



◆ JTBC '님과함께 시즌2'

오후 9시 40분

평균 나이 41.5세 늦깎이 부부가 놀이동산 데이트를 한다. 윤건은 장서희를 놔두고 혼자 롤러코스터를 타는 철없는 모습을 보인다. 안김부부에게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일(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54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44회)	15 불굴의 차여사 (105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22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19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5회) 55 대단한 레시피 (1회)	55 딱 너 같은 딸 (14회)	0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30 2016학년도 6월 모평 경향분석 및 대비전략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6회)	00 맨도롱 또똣 (8회)	00 가면 (4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콰이강의 다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제4의 물결 바이오를 선점하라	15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시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인성채널e-안녕! 우리말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29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6회) (재)	50 오늘 뭐 먹지?	20 오늘 뭐 먹지? (67·68회)		20 화피2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넥센 (SPOTV+) SK vs KT (MBC SPORTS+) KIA vs 두산 (SKY SPORTS) 롯데 vs 삼성 (SBS SPORTS) LG vs NC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40 삼시세끼 정선편 (3회)	00 쇼킹 70억 (12회)		
20시	50 JTBC 뉴스룸	00 삼시세끼 정선편 (3회) (재)		00 기생PARASITE 4부 기생, 그리고 사람들	50 주말 N 영화 (516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5회)	40 한식대첩 3 (3회)	30 한식대첩 3 (3회)	00 새끼 곰들의 성장기		
22시				00 2015 쥬라기 스페셜 스피노사우루스 vs 티라노사우루스	00 최종병기 활	
23시	00 썰전 (118회)	00 문제적 남자 (15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3회) 20 오늘 뭐 먹지? (68회)	00 배틀그라운드 브라더스 3부		
24시	20 5일간의 썸머 (3회)	20 집밥 백선생 (3회) (재)	00 한식대첩 3 (3회)	00 콜드 워터 골드 (2회)	20 쓰리데이즈 투 킬	

‘150홀드 신기록’ 안지만 “‘최고 기록’ 좋아”



2일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2015프로야구 롯데 대 삼성 경기. 롯데를 13-7로 꺾은 삼성 안지만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롯데전 5개 삼진 역투 “4년 65억원 돈값 해야죠”

안지만(32·삼성 라이온즈)이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초로 150홀드 고지에 오르며 새역사를 썼다.

안지만은 2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8-5로 앞선 7회초 1사 1루에 등판해 1⅔이닝 동안 아웃카운트 5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고 홀드를 추가했다. 올시즌 15홀드로 역대 최초로 150홀드 고지를 점령했다. 중간 계투로서는 최고의 훈장이다.

안지만은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선발, 중간, 마무리 다 해봤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기록은 홀드다”며 “타자들에게 홈런, 안타, 타점 등이 중요한 기록이듯이 나에겐 홀드가 정말 소중한 기록”이라고 뿌듯해 했다.

이어 “나는 최초 기록을 좋아한다”며 “최연소, 최고령, 최다 기록은 언젠가는 깨질 수 있지만 최초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사상 첫 150홀드 달성의 의미를 부여했다.

안지만은 삼성 벤치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불펜 요원이다. 2002년 삼성에 2차 5라운드 40순위로 입단해 2003년부터 1군에서 뛰었지만 패전 처리용이었다. 이후 절치부심한 안지만은 2005년 63경기에 나와 개인 최다인 8승 3패에 14홀드를 올리면서 불펜의 유망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가 절정의 시기였다. 아시안게임 결승전, 삼성의 정규리그 우승 확정일에 등판해 승리투수가 됐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삼성 불펜진을 이끌며 큰 경기에 강한 ‘빅게임 피처’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런 활약 덕분에 지난 시즌을 마치고 4년간 65억원의 초대형 FA 계약을 맺었다.

안지만은 “아직 시즌 초반이라 잘 모르겠다. FA라는 게 과거 활약에 대한 보상과 미래 가치까지 모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4년을 봐야 한다. 3년 잘 하고 1년 부진해서도 안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먹튀 소리를 듣게 된다. 꾸준히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블라터 FIFA 회장, 결국 사임

차기 회장 플라티니 급부상… 美 FBI “수사 지속”

제프 블라터(79)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결국 손을 들었다.

AP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블라터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FIFA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커지는 가운데 자신이 수장을 계속 맡는 데 국제 축구계가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FIFA 집행위원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임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회는 공식적으로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임시 총회가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에 소집되며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은 유지된다.



제프 블라터 FIFA 회장. /Xinhua=연합뉴스

FIFA 차기 회장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인사는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다.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와 미카엘 판 프라흐 네덜란드 축구협회장, 이사 하야투 아프리카축구연맹 회장도 ‘잠룡’으로 꼽힌다.

미국 ABC 방송은 같은날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연방 검찰이 블라터 회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 요원들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윗선’이 누구인지 대도록 하는 수사 기법을 설명하면서 블라터의 연루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라터가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미국 FBI와 연방검찰의 수사 압박이 최근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희철기자



추신수, 시즌 8호 홈런포 꽝!

3안타 맹공… 강정호는 결장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6월 첫 경기에서 홈런을 포함해 3안타를 기록하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상승세를 이어갔다.

추신수는 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6-2로 앞선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뜨렸다.

앞선 두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난 추신수는 세 번째 타석에서 화이트삭스의 우완 선발투수 제프 사마자의 시속 153㎞ 짜리 빠른 볼을 힘으로 잡아당겨 우중간을 가르는 포물선을 그렸다. 지난달 23일 뉴욕 양키스전 이후 열흘 만에 나온 시즌 8호 홈런이다.

추신수는 7-2로 달아난 6회 무사 1,2루 왼손 투수 댄 제닝스와 대결해 볼 카운트 0볼-2스트라이크에서 깨끗한 1타점중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시즌 타점은 2개를 보태 25개로 불었다. 통산 492타점을 기록해 500타점 달성 초읽기도 들어갔다. 7회 1사 1루에서도 우전 안타를 쳤다. 3안타 경기는 시즌 4번째다.

피츠버그 내야수 강정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피츠버그가 7-4로 승리했다. /하희철기자



프리미어리그 우승한 첼시, 수당 1680억 받았다

구단별 수당 차이 크지 않아

올시즌을 마무리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가 우승팀 첼시에 9899만 파운드(약 1680억원)을 지급했다.

프리미어리그는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5년만에 우승을 차지한 첼시가 광고수입과 해외 방송중계권 수입 등을 합해 9899만 파운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본수당 2196만 파운드(373억)와 시설사용료 1998만 파운드(339억), 성적수당 2489만 파운드(423억), 해외방송 중계권 수익 2775만 파운드(471억), 중앙 광고수익 4392만 파운드(746억)를 합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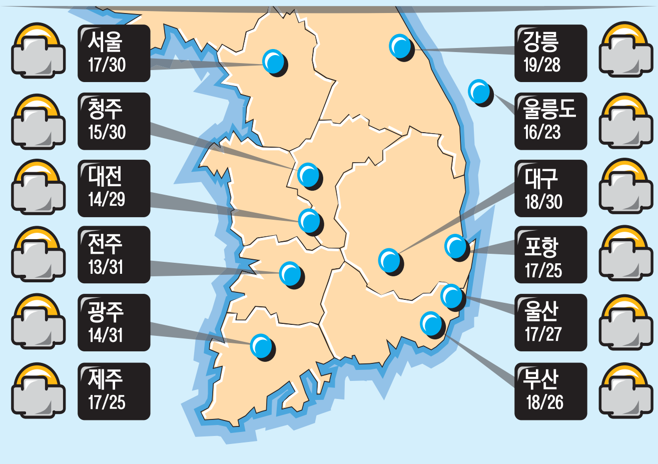
20개 구단 중 최하위 성적으로 다음 시즌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퀸스파크 레인저스도 6488만 파운드(1100억원)를 받아 구단간 차이가 크지는 않다. 프리미어리그가 국내 방송 중계권료 수익의 50%를 기본수당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25%는 성적수당, 25%는 경기중계 횟수에 따른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해외방송중계권 수익, 중앙 광고수익 등도 20개 구단에 동일하게 나눠 지급했다. /하희철기자

날씨

6/4 목 일출시각 05:12 일몰시각 19:4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3		
					6	7		
	7						6	2
	8		6	4	1		2	
	4				8			3
6		9			5			
8			5					
	6			3	4	1		
		1	8					5

		6			7			
	1			9		3		
7		4		3			8	
2							6	
6	7	9				2	1	5
	5							3
	3			4		8		1
		2		1			9	
			9			5		

스도쿠 정답

4	1	6	7	2	9	3	5	8
2	5	3	4	8	6	7	9	1
9	7	8	1	5	3	4	6	2
3	8	7	6	4	1	5	2	9
1	4	5	2	6	8	9	7	3
6	2	9	3	7	5	8	1	4
8	9	4	5	1	7	2	3	6
5	6	2	9	3	4	1	8	7
7	3	1	8	9	2	6	4	5

3	9	6	8	2	7	1	5	4
8	1	5	6	9	4	3	7	2
7	2	4	1	3	5	6	8	9
2	4	3	7	5	1	9	6	8
6	7	9	4	8	3	2	1	5
1	5	8	2	6	9	7	4	3
9	3	7	5	4	6	8	2	1
5	6	2	3	1	8	4	9	7
4	8	1	9	7	2	5	3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Incompetent Government <자존심 센 무능정부>

Heath Authorities couldn't prevent the unnecessary death of MERS infected patients. The 58-year-old woman 71-year-old man died on Monday and Tuesday respectively due to the MERS.

President Park went to Yeosoo the day after the news about the death of 2 MERS patients. She went there to participate in the ceremony of 'creative economy.' Chung Wa Dae emphasized that this place would be the center for trade of Chinese agriculture and fish products.

China is under great distress and fear because of the MERS patients who are on business trip momentarily. President Park is remaining silent regarding this matter. It is expected that she would take action after this becomes a reality. The official meeting opened 12 days after the first MERS patient was confirmed.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전남 여수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GS칼텍스에서 개발한 바이오 뷰탄올 연료로 운전하는 이앙기에 대해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의 무능으로 인해 나오지 않았어야 할 희생자가 연이어 나왔다. 지난 1일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A(57)씨에 이어 2일 B(71)씨가 사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메르스 사망자 소식이 이어진 이날 남해안의 여수를 찾았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빠짐없이 개소식에 참석해왔다. 청와대는 이곳의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은 현지 출장 온 한국인 메르스 환자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말이 없다. 전례에 비추어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사후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관련 긴급 회의는 메르스 환자가 나온지 12일이 지나 열렸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 5년차인데 자식이 없어 고민입니다
내년 상생운… 올 하반기부터 준비하시길

어린왕자 여자 79년 3월 6일 양력 8시쯤

Q 37세 주부입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의 고민을 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저의 고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아직 애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았지만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부부애도 별문제가 없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는 점술가에게 가서 물어 보았더니 자손이 귀한사주 라고 하는데 기다려 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인간사가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저의 고민도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사주공식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화생토(火生土:불이 토를 생해줌)하여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土生金 金生水 水生木)하는 상생의 흐름이 태어난 월일(月日)에서 수생목(水生木)이 되어야하는데 수극화 금극목(水克火 金克木)으로 충 되어 끊어져 있습니다. 목(木)의 기운은 귀하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자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수(水)기와 충돌되니 수화상쟁(水火相爭)이 되어 수목 양(水木 兩)기운이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 자식 궁이 생일 기준으로 운(運)에서 공망(空亡:빌공, 망할망)이 되어 있어 자식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태어난 시(時)인 갑진(甲辰)시 기준으로 일주(日柱:본인을 나타냄)가 내년 2016년은 상생의 운으로 흐르니 2015년 하반기부터 잘 계획을 하십시오. 그 외에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신앙으로서 삼성(三聖)신안의 전통이 강합니다. 즉 산이 많다보니 산신신앙, 지구의 중심을 잡아주고 보호하여 준다는 북극성과 그 북극성을 외호하는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칠성신앙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특별한 종교가 없다면 작은 대접에 정성껏 담은 물 한 그릇으로도 올릴 수 있고 또는 미역 한 다래만이라도 올리고 두 손 정성껏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올릴 수 있는 살림살이의 기도방법이 칠성기도입니다. 신령한 산의 정기와 기운을 지닌 산신(山神), 칠성기도의 영험과 가피가 위신력을 빌어 숨통 트이는 일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의 표상입니다. 물을 받아 장독대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치성을 드리던 우리의 할머니들 모습을 마음속에 어렴풋한 기억으로 생각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접하고 숭앙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가피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4일 (음 4월 18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60년생**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72년생** 주변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84년생** 오늘 하루는 심신이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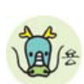
49년생 성과는 후에 골고루 돌아갑니다. **61년생** 음양의 조화가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73년생** 작은 선물로 사랑하는 감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85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51년생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중하세요. **63년생**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75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7년생** 성급한 판단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52년생 어려운일이 생기면 끈기있게 해결하세요. **64년생** 주변의 일에 신경을 쓰면 화를 당합니다. **76년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8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로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53년생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5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77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89년생**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54년생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66년생** 시험 운이 좋은 하루 입니다. **7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90년생** 노력 없는 요행수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보세요.



56년생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2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금만 미루세요.



57년생 주위에 신뢰를 쌓을 때 입니다. **69년생** 일에 진척이 있습니다. **81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93년생**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58년생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70년생** 미련이 남아있으니 재력에 손실이 많습니다. **82년생**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다. **94년생** 현명한 지혜와 건강한 육신이 자랑스럽습니다.



59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니 사과하세요. **71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주세요. **95년생** 진로문제로 갈등이 있겠습니다.

블라터 사임, 거대조직 FIFA 개혁 초석 되길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30년 넘게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군림해왔던 제프 블라터 회장이 3일 결국 사임했다.

블라터 회장은 지난달 30일 FIFA 총회에서 열린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5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FIFA를 둘러싼 부패 혐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4년 임기의 회장에 당선된 지 불과 닷새도 넘기지 못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압박은 치밀했다. 미 수사당국은 스위스 경찰과 연계해 지난달 27일 FIFA 총회를 앞두고 간부들이 머물고 있는 스위스의 한 호텔을 급습했다. 당시 집행위원회 부회장 등 7명의 고위직을 전격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스위스 검찰은 곧이어 FIFA 본부를 수색해 전자서류와 문서를 압수하고, 돈세탁이 의심되는 스위스 일부 은행에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동시에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개최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집행위원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법무부는 부정부패 혐의로 스위스에서 체포된 7명을 포함한 스포츠 마케팅 관련 인사 14명을 기소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블라터의 사임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FIFA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데이비드 길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장의 사임에 이어 유럽축구연맹 주요 인사들은 FIFA 집행위원회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블라터 사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미 연방검찰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FIFA 계좌에서 빠져나간 1000만 달러를 뇌물자금으로 보고 블라터의 목을 조였기 때문이다. 미 연방검찰은 1000만 달러의 송금에 블라터의 오른팔인 제롬 발케 사무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라터의 사임과 별도로 미 수사당국과 연방검찰은 블라터의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체포된 FIFA 간부들을 통해 블라터 회장의 혐의점을 포착했다는 미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미 수사당국은 부패 혐의로 체포된 FIFA 간부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부패의 핵심은 블라터"라는 증언을 경쟁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하튼 이번 블라터의 사임을 계기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스포츠 단체 FIFA가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건설사, 유가하락에 메르스까지… 중동에 대한 '고민'



기자 수첩
김 형 석
<경제부 기자>

중동이 발원지로 의심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가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고 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환자는 30명이다. 방역당국이 격리·관찰하고 있는 대상자도 연일 배가량 늘어 1312명에 달하고 있다.

메르스의 공포가 확산되자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휴학을 했고, 치료약이 없는 데도 일부 백식 관련주가 두 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도 비상이다. 해외 건설공사 70% 이상이 메르스 발병 근원지인 중동에 있기 때문이다.

현지 공사장에서 집단으로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공사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혹여나 현지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

업체별로 예방수칙과 대응지침을 하달하고 있지만 확진판정을 받아도 쓸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건설사의 중동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라스 타누라 대형 프로젝트(20억 달러 규모)의 재입찰을 잠정 중단했다. 카타르 석유공사도 65억 달러 규모의 알카라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60억 달러 규모의 교량·터널 사업인 도하 샤크 크로싱 프로젝트도 1년 뒤로 늦춰졌다.

이슬람국가(IS)로 인한 정세불안도 겹치면서 국내 기업의 올해 중동 수주액은 지난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해외 담당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발주처인 중동이지만 끊임없이 리스크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13년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상당수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도 발생했고 파산하는 기업도 여럿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중동을 버릴 수도 없다.

지난해 중동에서 수주한 액수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313억 달러다. 최근 공종과 지역 다변화로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의 수주도 늘고 있지만 중동에 비하면 규모는 매우 작다.

한·중FTA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지만 현지의 높은 규제와 세계적인 중국건설사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도 쉽지 않다.

한 건설사 해외 담당자는 "30년 넘게 중동시장을 공략하면서 수주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에 혜택을 받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때문에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지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동 수주를 지속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건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주요 사업임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또 중동 수주가 이에 큰 보탬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문에 발생한 의존성을 깨지 못하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는 힘들다. 이번 사태가 당국과 업계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지난 1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험금 달라면 소송거는 보험사들

소비자 119

2014년 보험금 지급액수 등과 관련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분쟁을 벌이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손해보험사의 경우 880건, 생명보험사의 경우 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하면당장 치료비나 생활비 등이 급한 가입자들은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보험사측이 제시하는 금액만 받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총액을 줄이기 위해 이런 소 제기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보험사 분쟁 중 소 제기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지난 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 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사건 26건 중 7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손보사의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를 훨씬 넘는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 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보험사들이 소를 먼저 제기해야 가입자들이 겁을 먹고 보험사가 원하는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산소비세정책관 임재현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수출입과장 나성화
■ 강원 강릉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명남
■ 새만금개발청
△과장(4급)급 전보 ▷투자전략국 교류협력과장 최정민 △4급 승진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실 김선일
■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김웅겸
■ 신한생명
△지점장 승진 ▷신촌지점 강기천 ▷주안지점 윤으뜸 ▷서면지점 임규진 ▷서군산지점 최광용 ▷충장지점 이영진 ▷상무지점 이송연 △센터장 승진 ▷대전고객플라자 양웅아 △부장 전보 ▷FC지원부 오동현 ▷방카슈랑스지원부 고진호 ▷영업교육부 박종진 △지점장 전보 ▷백송지점 김경철 ▷청라지점 김기선 ▷부산지점 백승민 ▷화명지점 박세근 ▷거제지점 전병호 ▷신전주지점 김상락 ▷치평지점 오동근 ▷보령지점 최진억 ▷수원SOHO지점 강수원 ▷리치FM지점 김광원 ▷부평FM지점 장용창 ▷파워ACE지점 이성원 ▷ 용산지점 하성식 ▷구리지점 이금주 ▷광명지점 황인상 ▷부평지점 한설리 ▷구월지점 장주철 ▷수로지점 한경숙 ▷진주지점 이순재 ▷청주지점 유관수 ▷대전SOHO지점 박은하 ▷의정부FM지점 김순애 ▷분당FM지점 박경은 △센터장 전보 ▷강북고객플라자 이정현 ▷대구고객플라자 정원철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송영규 △편집국 ▷디지털미디어부장 문성진
■ 한국정책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최영규

부고

▲강분수씨 별세, 이재원(한겨레신문 출판국 부국장)씨 모친상 = 2일 오후 5시 40분, 성서요양병원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 053-582-0444
▲이동화씨 별세, 서우석(서울시립대 교수)·영주(디에스제이건축 대표)·수민씨 모친상, 정민우(현동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종원(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과장)씨 빙모상 = 3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 02-2258-5940
▲김연이씨 별세, 송하청(GS건설 상무, Global Engineering 본부장)씨 모친상 = 2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VIP 10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 032-517-0710
▲황선(전 쥬리아화장품㈜ 사장)씨 별세, 정준(남성플라테크 이사)씨 부친상, 이영성(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장)씨 빙부상 = 3일 오전 8시,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 051-601-6792



현대증권 절세 HERO 3종사

올해 1,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124.8만원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올해 400만원 저축하면?
내년 **52.8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13.2%**

IRP(개인퇴직연금)

올해 300만원 저축하면?
내년 **39.6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13.2%**

소득공제장기펀드

올해 600만원 저축하면?
내년 **32.4만원 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 포함/농특세 고려)

공제금액/투자금액
연 **5.4%**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363호(2015년 04월 07일~2016년 04월 05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펀드가입 전(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현대증권